

# 대상 선정 모호 · 합의도출 어려워

공론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조계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거부하지나 공론 조사를 대신할 대안이 없고, 수용하지나 불교 환경 ·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기를 못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일단 불교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공론조사 수용이나 거부시 불교계 대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론조사는 무엇이고, 실시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왔다.

## 공론조사 방법과 문제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로서 영향력을 가진다.

공론조사는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 사회의 중요 현안 해결에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실시된 적도, 전문기도 없어 시행시 장

반 인원 구성비는 반반씩 할 수도 있고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찬반 비율대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일단 불교계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불교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사 대상부터 인원 구성, 방법 등 모든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해관계자들이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얼마나 포함시킬지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즉 지역 주민과 불교계, 환경단체 인사들을 얼마나 어떤 구성비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조사방법이나, 토론방식 등 모든 것이 상호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론조사와 관련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정책 결정력 부족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관통비 · 관통 이전에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조계종 사회과장 역시 "환경 문제를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사고부터 문제"라며 "환경은 여론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공론조사란?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창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론조사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표본을 추출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의견조사를 한다. 이어 찬반 양측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뒤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을 통해 생각이 정리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의견조사를 한다. 그 결과에

##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표본추출 의견 타진

### 조사 · 토론 방식 합의 없으면 시간 걸려

안자가 초청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시행되나?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것은 1천명, 적게는 500명 정도로 해 이들이 사안을 알 때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토론을 하게 한 뒤 이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최창원 서기관은 "어느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기획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언론사에서 주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불교계가 공론조사에 참여하려도 표본을 어떻게 구성할지 가

## 한국갤럽 조사

한국갤럽이 올해 발표한 종교인구 현황을 1997년의 같은 조사와 비교한 결과 종교인구 비율 10%가량 증가했으며 증가비율의 대부분이 불교인구의 증가(8.7%)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가 불교계 스스로의 노력이나 사회 · 문화적 변동에 따른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앞으로의 포교전략과 관련해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법회와 설법> 10월호(조계종 포교원)에 기고한 '불교인구 10% 증가의 뜻'이란 글에서 이 같

# 종교인구 5년동안 10% 증가 불교 8.7% 늘어

## 사회현안 헌신적 참여 · 종단 안정의 결과

은 주장을 펼 데 이어 불교문화정보 네트워크는 10월 7일 오후 7시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같은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어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1989년, 1997년, 2003년 조사한 종교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종교인구의 변화를 추적한 앞의 글에서 윤 연구위원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불교에 돌아간 것은 해방 이후 개신교가 성장을 주도해온 한국 종교계의 흐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고 밝혔다.

전체 종교인구 비율을 특히 1997년과 비교해 보면 46.9%에서 56.9%로 10%나 증가했다. 이를 종교별로 보면 1985년 18.8%, 1989년 20.9%, 1997년 18.3%였던 불교가 2003년에는 27.0%로 바로 앞 조사에 비해 8.7%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

간 기독교는 17.2%→19.2%→20.3%→21.2%로 상승 추세이긴 하나 1997년에 비해서는 0.9% 증가에 그쳤다. 1985년(1.3%)에 비해 1989년 2.7% 증가로 상승곡선을 탔던 천주교 역시 1997년 7.4%에서 2003년 7.6%로 0.2%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종교인구 비율 증가의 주 원인이 불교인구의 증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석은 분분하다.

포교원 포교연구실 박희승 차장은 "수경, 지을 스님처럼 사회 현안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헌신적인 노력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97, 98년 이후 조계종단이 안정 · 화합의 길을 걷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불교계 내부 변화가 주 동인"이라고 들여다봤다.

이에 비해 윤 연구위원은 "이 기간동안(1997~2003년)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큼 큰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앙대중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불교의 내적인 신앙특성과 맞아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며 "냉철하게 그 원인을 따져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mmy@buddhapia.com



◇생전으 고승 스님.



◇고승 스님 다비식은 24일 파계사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 “사바세계 돌아와 중생교화를”

### 고승 스님 9월 22일 입적... 파계사에서 간소한 영결식

### 9월 28일 49재 입재... 11월 9일 회향

조계종 최고령 명예원로의원이며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었던 파계사 조실 고승당 종현 대종사가 9월 22일 0시40분경 세수 98세, 법랍 83세를 일기로 파계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고승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24일 파계사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결식은 평소 검소한 삶을 강조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파계사 설법전에서 간소한에서도 여법하게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명예원로의원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은 영결식 법어에서 "고승스님은 용성스님, 한암스님 등 당대 선지식 스님들을 모시고 수행한 몇 안되는 스님 중 한 분"이라고 회고하며 "본래 나고 죽음이 없으니 하루속히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교화해 달라"고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조사에서 "스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시간 가량 봉행된 영결식에 이어 고승스님의 법구는 7개의 만장을 든 스님들이 길을 연 가운데 영결식장을 출발해 파계사 다비장으로 운구된 뒤 연화대에 올려졌다.

다비식은 불교계 원로와 문도 대표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거행했으며, 사리와 유골은 다음날 수습했다. 49재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파계사 설법전에서 입재해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하며 11월 9일 회향한다.

고승스님은 1906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1920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이어 1925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용성스님이 주도의한 30년 결사에서 동참하는 등 금강산과 묘향산 일대에서 수행정진 해오다 1938년에는 한암선사로부터 전법계를 수지했다. 1975년 조계종 원로의원 소임을 맡았고 팔공산 파계사에서는 지난 1954년부터 주석해왔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 외국인 포교에 남다른 열정

### 연등국제선원장 원명 스님 9월 23일 입적

외국인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큰 힘을 기울여온 연등국제선원 선원장 원명 스님이 9월 23일 오전 6시 함평 청량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53세, 법랍 33세.

195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70년 해인사에서 전 조계종 종

정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이 외국인 포교에 뛰어든 것은 1985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연등국제불교회관을 개설하면서부터다. 이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독일 등에 해외 분원을 설치했고, 외국인 수행자가 늘어나자 1997년에는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길

러내기 시작했다. 말살죄 일백 스님을 제외한 10여 명의 상좌가 모두 외국인 스님이다.

스님 입적 전부터 방글라데시 출신 일본 스님이 서울 연등국제 불교회관의 운영을, 스위스 출신 일고 스님이 강화 연등국제선원을 맡아오고 있어 이 두 곳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권형진 기자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자정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밥장 배려

# 천안 성불사 가을 산사음악회

## 인사말씀

천년의 훈이 숨쉬고 불자님들의 안식처이며 기도처인 천안 태조산 성불사가 가을산사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포교와 불교문화의 멋과 운치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이제 성불사가 잠에서 깨어나 꿈을 향해 나래를 펴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들 마음 깊이 점을 찍어 봅시다.

동료 불자와 가족들을 산사음악회에 초대하오니 무무동참하시어 이 가을의 낭만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불기 2547년 10월

주지 원경 합장

- 일시 : 2003년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천안 성불사 경내



## 프로그램

- 사물놀이 성불사 풍물패
- 합창 성불사 · 각원사 · 공주포교당 합창단 태조산 성불사, 기쁜날, 법고등등

## 본 공연

1. 풍물팀 두드락 - 대북연주
2. 정태훈, 박은옥 - 시인의 마을, 쫓겨, 사랑하는 이에게 등
3.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연주 (1곡) : 영산회상
4. 성불사 · 각원사 · 공주포교당 합창단,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합창곡 - 운수대통, 우리는 서로 만났습니다.
5. 최정원, 성불사 · 각원사 · 공주포교당 합창단,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 부처님 이야기
6. 최정원,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 찬미의 나라, 꽃을 바치나이대 진도아리랑
7. 유진박,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 고구려의 혼
8. 유진박 - 락 & 록 등
9. 유진박 & 홍화자 - 손에 손잡고, 빅토리
10. 정윤스님 -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향심, 고향의 노래
11. 안치환 - 귀뚜라미, 절망앞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12. 박정숙 - 배뱅이굿

대한불교 조계종 태조산 성불사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8번지 TEL 041)565-4567